

서기문씨가 그린 초상화. 사진왼쪽부터 목포 상고시절, 내란음모죄로 수감생활을 하던 시절, 대통령 당시 집무모습, 이희호 여사와의 행복한 한 때.

한획 한줄 생생한 삶과 정신

‘김대중의 유산’

12일 DJ센터서 학술회의·학술상 시상

11일~17일 서울 인사동서 ‘DJ 어록 서예전’

시대를 움직였던 명연설가이자, 명문장가였던 고(故) 김대중 전대통령은 세상을 바라보는 깊은 통찰이 담긴 글과 말을 많이 남겼다.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열리는 ‘김대중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모 어록 서예전’에 가면 가슴에 새길 만한 글귀들을 만날 수 있다.

이번에 전시회에 참여한 서예가는 모두 37명으로 대한민국서예대전 초대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내로라하는 명필가들이다. 광주에서는 강형채·이돈홍·전명옥·전종주·정광주·조용민씨 등이 작품을 내놓았고 광정우·김병기·변요인·송하경씨 등 자신의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전국의 유명 서예인들이 대거 참여, 김 전대통령의 어록을 자신만의 예술작품으로 승화시켰다.

이번 전시회는 광주 지역 인사들이 중심이 돼 전국의 정치·경제·문화계 인사들을 포함, 김대중대통령 추모 어록전 행사위원회(위원장 정해숙)를 꾸리면서 현실화됐다.

서예 작품으로 재탄생한 글귀는 ‘김대중 옥중서신’ 등 김 전대통령이 남긴 30여권의 저서를 정진백(한국사상문화원장)씨가 일일이 검토한 후 뽑았다. 내용은 통일, 평화, 정치 등 선곡은 구절 이외에도 사랑, 봉사, 이웃, 가족 등 개인적인 감성이 담긴 글까지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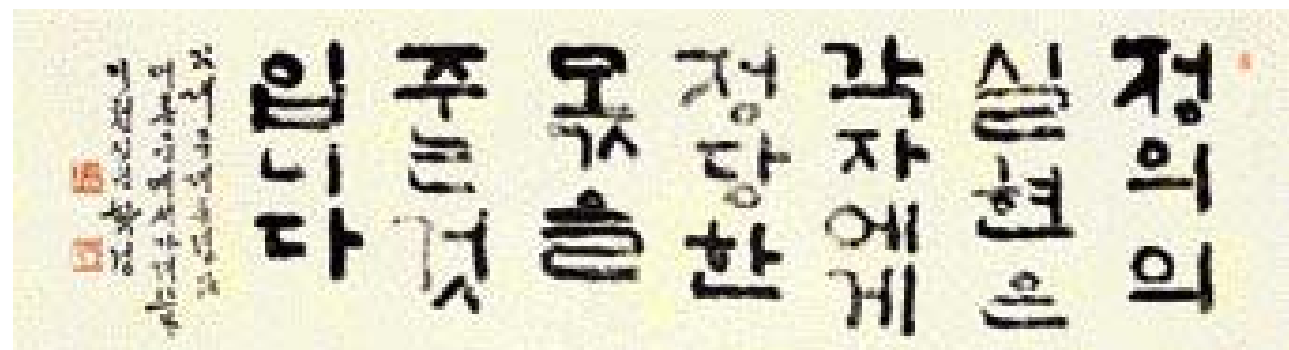
‘목표는 높이 잡고 실천은 한단계 한단계 착실하게 해나가라. 무리도 말고 쉬지도 말아라’, ‘진심을 터놓고 대화할 사람은 무엇보다도 인생의 삶의 척도를 무엇이 되는 것보다도 바르게 사는데 두는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에게 첫째로 꼽을 수 있는 성격은 열린마음이다’, ‘쓸모 없는 사람은 찾아오지만, 좋은 벗은 내가 찾아가서 사귀어야 한다’ 등 삶의 지혜가 담긴 글귀들이다.

지역 출신 예술가들은 추모 분위기에 적극 동참했다. 김 전대통령의 고등학교 시절부터, 감옥생활, 대통령 후보 시절, 대통령 집무 모습 등을 40호와 20호 크기의 세밀화로 그린 서양화가 서기문씨와 추모시 ‘인동초’의 노랫말을 쓴 시인 송수권씨, 곡을 부친 작곡가 김현옥씨 모두 추모의 마음을 담아 작품을 완성했다.

이번 전시회에 내걸린 초상화는 모두 첫선을 보이는 작품이며 집무모습을 그린 초상화는 김대중평화센터에 기증될 예정이다. 문의 02-720-090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양택동 작 '좋은 벗'



이돈홍 작 '정의 실현'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1주기를 맞아 오는 12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이하 DJ센터) 4층 회의실에서 ‘김대중의 유산’이란 주제로 학술회의가 열린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남대 5·18 연구소, 조선대 민주화운동연구원,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 DJ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후광 김대중 학술상’ 시상식도 함께 개최된다.

2010년 후광 김대중 학술상 수상자로는 북한현대사와 김일성 연구의 권위자이자, 한일병합 무효 헌일 지식인 1000명 성명을 주도한 일본 도쿄대학 명예교수 와다 하루끼(和田春樹)교수가 선정됐다. 와다 교수는 이날 학술대회 1부 행사인 ‘김대중과 동북아시아 평화체제’를 주제로 한 추모강연을 가질 예정이다. 와다 교수의 강연에 이어 2부에서는 고 김 전 대통령이 우리 시대에 남긴 가장 큰 유산인 ‘평화사상과 남북관계’를 주제로 김대중 대통령의 삶과 사상을 돌아보고, 현 남북관계에 던지는 시사점을 알아보는 학술토론을 펼친다.

김성재 연세대 교수(김대중도서관 관장)와 문정인 연세대 교수가 각각 ‘김대중의 삶과 사상 : 평화를 향한 여정’,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주제발표하고 오승용 전남대 교수와 정재호 조선대 교수, 윤영덕 전남대 교수와 지병근 조선대 교수가 토론을 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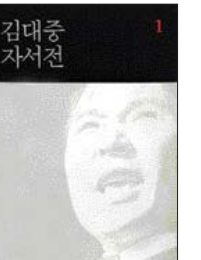
이날 DJ센터 1층에서는 고 김 전대통령의 사진 100여점이 전시된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고 김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을 비롯해 강운태 광주시장, 김윤수 전남대 총장, 전호준 조선대 총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l@kwangju.co.kr

‘김대중 자서전’ 일주일만에 초판 2만부 매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삶과 정치 역정을 담은 ‘김대중 자서전’이 서점가에 불풍을 일으키고 있다.

책을 펴낸 출판사 삼인은 5일 “일주일 만에 초판 2만 부가 매진됐으며 1만 부 추가 주문분은 제작이 완료되는 대로 출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판사 측은 주문이 쇄도하자 2판 1만 부 추가 제작에 들어간 데 이어 3판 1만부를 더 찍을 계획이다. ‘김대중 자서전’은 교보문고 등 주요 인터넷 서점의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에서도 현재 2~3위를 기록 중이다. /연합뉴스



비행기 타고 휘리 타고 떠난다!
 1박 2일 2회 승용
 김해노력행 → 제주도생생여행

대 바도 제주도 1박2일 ₩339,000~ 제주 - 김해(기차) - 제주	대 바도 제주도 2박3일 ₩439,000~ 제주 - 김해(기차) - 제주	
울릉도 울릉도 1박2일 ₩222,000~ 제주 - 울릉도(기차) - 제주	울릉도 울릉도 2박3일 ₩273,000~ 제주 - 울릉도(기차) - 제주	
산지리 산지리 2박3일 ₩239,000~ 제주 - 산지리 - 제주	물야도보소록 2박3일 물야도보소록 2박3일 ₩499,000~ 제주 - 물야도보소록 - 제주	
중국 대림 1박2일 ₩399,000~ 제주 - 대림 - 제주	대림 2박3일 ₩229,000~ 제주 - 대림 - 제주	대림산 1박2일 ₩499,000~ 제주 - 대림산 - 제주

02)514-6226 062)382-8203
대아여행사